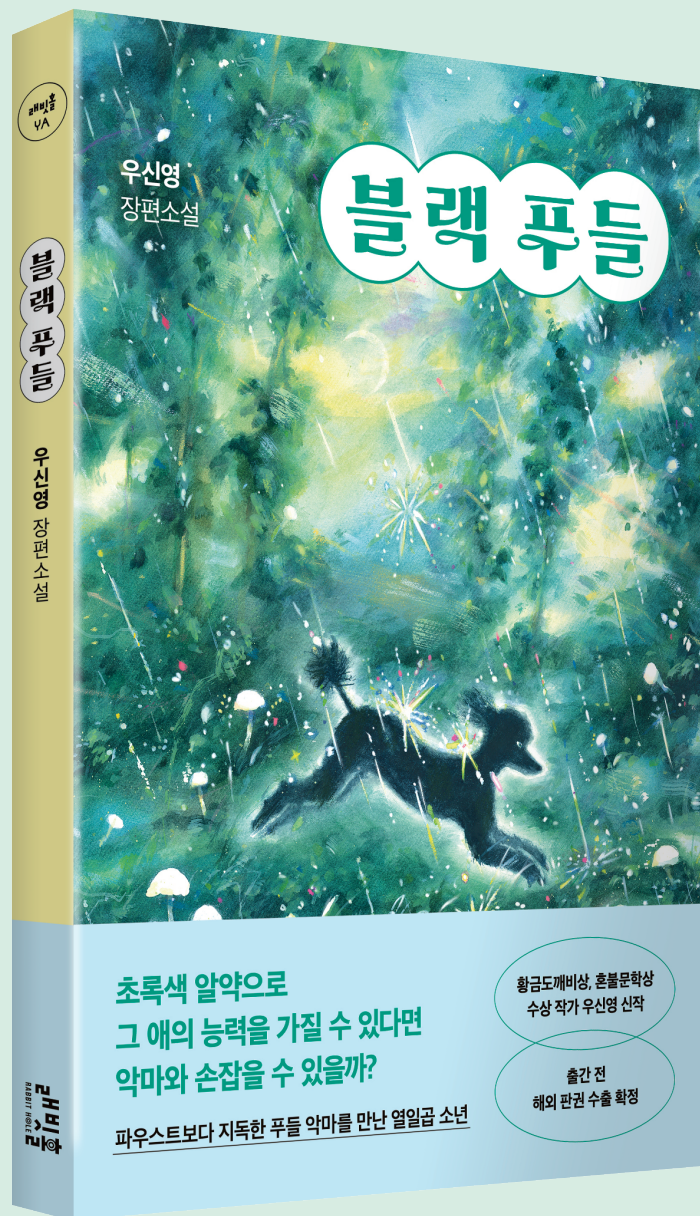


한 학기 한 권 읽기 독서 활동지

작성 이강휘 (마산무학여자고등학교 교사)



블랙 푸들

우신영 장편소설

주제어: _____

※ 책 소개

열일곱 살 표우수는 에덴 빌딩에서 피아노 학원을 운영하는 백설희 원장의 아들이다. 최고의 학군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기는 하지만 칼날처럼 엄격한 엄마의 눈에는 ‘악기도 애매, 공부도 애매, 인물도 애매’한 아이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고 억울해하기에는 바로 곁에 모든 걸 갖춘 친구가 있다. 실크 커튼 같은 머리칼, 모공 하나 없이 보송보송한 피부, 수학 문제를 막힘없이 풀어내는 천재적 두뇌를 가진 완벽 그 자체, 탁수현. ‘엄마 친구 아들’이라기엔 아예 ‘엄마와 친구가 된 아이’처럼 천부적인 피아노 연주 실력을 갖추고 엄마의 관심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 우수는 수현을 향한 미움과 질투를 밤마다 삭이며 자신의 곱슬머리를 쥐어뜯는다.

그러던 어느 깊은 밤, 악마의 춤곡 〈메피스토펠트 왈츠〉가 들려오고, 구불구불한 검은 털이 풍성한 푸들 한 마리가 나타나 수현의 능력을 빼앗아 올 수 있다며 비밀 계약을 내민다. 유혹적인 제안이지만 치러야 할 대가는 저렴하다. 그저 “멈추어라” 말할 수 없다는 것뿐. 우수는 초록색 알약을 삼키고 악마와 계약을 맺게 될까?

※ 학습 목표

- ① 음악과 문학적 모티프를 바탕으로 인물의 복잡한 심리와 갈등을 추론할 수 있다.
- ② 등장인물의 심리에 공감하며 자신의 일상을 성찰하고 자아를 탐색할 수 있다.
- ③ 문학과 음악을 연계하여 예술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할 수 있다.

※ 독서 계획

차시	단계	활동 내용
1	독서 전 활동	작품 미리보기
2	독서 중 활동	1악장. 라 캄파넬라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사실적 읽기) 작품 배경 파악하기 3. (배경지식 쌓기 + 추론적 읽기) 작곡가 알아보기 + 인물 심리 추론하기
3		2악장. 메피스토펠트 왈츠 1. (감상적 읽기) 인물의 심리에 공감하기 2. (추론적 읽기) 인물 행위의 상징성 추론하기 3. (창의적 읽기 + 추론적 읽기) 파우스트와의 연관성 파악하기 + 소재물의 의도 추론하기
4		3악장. 엘리제를 위하여 1. (사실적 읽기 + 감상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바람직한 삶의 태도 성찰하기 2. (추론적 읽기 + 감상적 읽기) 인물 심리 추론하기 + 작품 내용과 관련된 경험 나누기 3. (추론적 읽기) 작품 내용 추론하기
5		4악장. 월광 소나타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음악과 작품 내용 간의 관련성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 비판적 읽기 +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파악하기 + 경쟁에 관해 생각해보기 + 인물의 심리 추론하기
6		5악장. 파우스트 교향곡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 추론적 읽기) 장면 상상하며 읽기 + 소재의 상징성 추론하기 3. (추론적 읽기) 소재의 상징성 추론하기
7		6악장. 장송 행진곡 1. (사실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2. (추론적 읽기) 구절 의미 추론하기 3. (비판적 읽기) 작품에 반영된 사회상 비판하기
8		7악장. 다시, 라 캄파넬라 1. (사실적 읽기 + 추론적 읽기) 내용 파악하기 + 작품 주제 파악하기 2. (감상적 읽기) 소망 떠올리기 3. (추론적 읽기) 소재물의 의미 파악하기
9	독서 후 활동	소설과 연계한 음악감상문 쓰기

[지도 tip] 이 작품의 '서주'는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모티프(질투, 악마와의 계약, 운명 교향곡)를 잘 담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며 주인공의 열등감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세요.

1.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블랙 푸들을 그려보고 여러분이 상상한 것과 비교해 봅시다.

폭풍 전의 숨처럼 음산한 바람이 불고, 열린 커튼 사이로 개 한 마리가 나타난다. 한쪽 발은 말발굽 모양, 정수리엔 수탉의 붉은 깃. 귀족적인 혈통답게 두 발로 직립할 수 있고, 악마적인 존재답게 입술로 유혹할 수 있는 블랙 푸들.

2. 서주(7~13쪽)를 읽고, 주요 등장인물의 특징과 관계를 정리해 봅시다.

인물	특징 및 관계
표 — —	▶ 특징: 유명 피아니스트 엄마의 기대를 받았지만 재능이 평범하여 늘 위축되어 있음. 불안할 때 뒤통수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이 있음. ▶ 핵심 감정: 수현을 향한 강렬한 ()와 ()을 가지고 있음.
탁 — —	▶ 특징: 완벽한 외모와 압도적인 피아노 재능을 가진 인물. ▶ 우수와의 관계: 우수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크게 ()하는 절친이자 라이벌.
백 — —	▶ 특징: 완벽을 갈구하는 촉망받던 피아니스트. 인생을 미스 터치를 허용하지 않는 ()이라 믿는 예술가. ▶ 우수와 수현을 대하는 태도: 친아들인 우수보다 압도적 재능을 가진 ()을/를 더 사랑하고 아낀.

3. 다음 질문에 답하며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당신에게는 그런 존재가 없는가. 쓰디쓴 열등감의 가루약을 당신 입에 퍼 넣는 자. 축축한 수치심의 물약을 당신 몸에 뿌리는 자. 버둥댈수록 빠져드는 질투의 늪으로 당신 등을 떠미는 검은 발바닥.

3-1.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에게 강한 '질투'나 '열등감'을 느껴 본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자유롭게 적어 봅시다.

질투나 열등감을 느꼈던 대상이나 상황:



당시 나의 마음과 행동:

3-2. 열등감을 느낄 때 머리카락을 뜯는 우수처럼, 스트레스나 열등감을 느낄 때 나타나는 습관이나 행동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3-3. 만약 오늘 밤 여러분 앞에 블랙 푸들이 나타나 타인의 한 가지를 훔쳐 주겠다고 제안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나는 (수락 / 거절)할 것이다. 왜냐하면,

1. (사실적 읽기) 작품을 읽고 5년 전 콩쿠르 사건과 등장인물의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구분	탁수현	표우수
연주곡		
콩쿠르 결과	()이/가 들어 앉았다는 평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함.	극심한 긴장감으로 무대에서 ()을/를 지리는 참사를 겪음.
이후의 삶	백설희 원장에게 스카우트 되어 아르떼의 희망이 됨.	()이던 별명이 ‘오줌싸개’로 바뀌고 아르떼에서 추방됨.

[지도 tip] 수현의 화려한 재능과 우수의 비극적 실수가 대비되는 지점을 통해 우수가 느끼는 질투의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2. (사실적 읽기) 괄호를 채워 ‘에덴 빌딩’의 구조도를 완성해 봅시다.

층수	입주 업체	운영자
3~4F	() 치과	()의 아빠
2F	아르떼 피아노학원	백설희
	토토 발레	—
1F	() 악국	—
	() 미용실	()의 부모님
B1	떡집, 반찬집, 만둣집	—

에덴 빌딩의 미래 건물주: ()

3.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3-1. (배경지식 쌓기) 영상을 참고하여 리스트에 관해 알아 봅시다.

- ▶ 참고 영상: 200년 전부터 사생팬 몰고 다닌 역대급 아이돌 피아니스트
<https://www.youtube.com/watch?v=dwHSVqjzVFc&list=PLVRsGH6-2vBg&index=4>

3-2. (추론적 읽기) <라 캄파넬라>의 의미가 ‘작은 종소리’임을 고려하여, 이 곡이 우수와 백설희 원장에게 어떠한 소리로 들렸을지 추측해 봅시다.

백설희 원장에게 수현이 연주한 <라 캄파넬라>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표우수에게 수현이 연주한 <라 캄파넬라>는

소리로 들렸을 것이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감상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보기〉

절친. 가장 친한 친구의 약자. 혹은 절대적으로 질투가 나는 친구의 약자. 보지 못하면 미친 듯이 궁금했고, 보고 있으면 미친 듯이 억울했다. 궁금함이 항상 억울함을 이겼다. 나는 전도된 숭배자처럼 수현을 쫓고 섬기고 모방했다. 가랑이가 찢어지게 쫓아가면 수현은 어느새 한정판 운동화를 신은 채 한 발짝 앞서가고 있었다. 우리 사이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고 그것이 나를 더욱 안달 나게 했다. 이런 감정엔 중독성이 있었다. 질투의 전문가. 학생부에 적지는 못하겠지만 그게 열일곱 표우수의 진짜 취미이자 특기였다.

1-1. 수현을 대하는 우수의 마음이 어떻게 생각해 봅시다.

1-2. 영상을 참고하여 우수에게 조언의 말을 건네 봅시다.

▶ 참고 영상: 몰래 질투하는 친구가 교묘하게 사용하는 말버릇 (김경일 교수)

<https://www.youtube.com/watch?v=u92zo1h2hcY&list=PLVRSgH6-2vBg&index=2>

2. (추론적 읽기) 〈보기〉를 읽고 우수가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추론해 봅시다.

〈보기1〉

곧게 뻗은 수현의 생머리와 대조적인 곱슬머리. 마구 꼬이고 뒤틀리는 나선과 곡선. 피아노의 숨겨진 현을 끊듯 함부로 당긴다. 한 가닥, 두 가닥…… 다섯 가닥, 여섯 가닥. 새카맣고 고슬고슬한 털들이 빗방울처럼 흩뿌린다. 모근이 뽑혀 나간 두피에 묵직한 통각과 쾌감이 동시에 몰려온다. 소심하고 모범적인 앞면의 내 얼굴. 하지만 그 뒤편은 흡사 달의 어두운 면. 핏빛 탈모반이 생겨난다. 더러운 마음이 고여 들수록 역설적으로 비어 가는 장소.

〈보기2〉

“왜 꼭 뒤통수여야 해?”

“네 그 착한 척하는 앞면엔 진실이 없어. 진실은 달의 어두운 면에 있지. 난 네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며 탁수현의 팔짱을 끼는지 다 알고 있다고.”

2-1. 우수가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행위를 하는 순간은 주로 어떤 상황인지 생각해 봅시다.

2-2. 우수의 내면 심리를 고려하여 뒤통수의 머리카락을 뽑는 행동과 그로 인해 생긴 탈모반의 상징적 의미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3. 다음 연주를 감상하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 참고 영상: Liszt Mephisto Waltz No.1 – Danil Trifonov

https://www.youtube.com/watch?v=TiFnaJ8pQAw&list=RDTiFnaJ8pQAw&start_radio=1

3-1. (창의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하여 고전 문학 〈파우스트〉가 이 작품에서 어떻게 변용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보기〉

소설 《파우스트》

평생 지식을 갈구했으나 허무감에 빠진 학자 파우스트에게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찾아온다. 악마는 파우스트에게 세상의 모든 쾌락과 젊음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파우스트가 받아들인다. 악마가 준 쾌락에 완전히 만족한 파우스트는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외친다. 그 순간 파우스트는 죽음을 맞이하고 그의 영혼은 악마의 소유가 된다.

질문1) 파우스트와 표우수가 원했던 것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 파우스트가 원했던 것:
- 표우수가 원했던 것:

질문2) 두 작품에서 메피스토펠레스가 제시한 계약 파기 조건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습니까?

3-2. (추론적 읽기) 〈보기〉와 이번 장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번 장의 제목을 “메피스토 왈츠”로 선택한 작가의 의도를 추측해 봅시다.

〈보기〉

〈메피스토 왈츠〉의 배경

작곡가 리스트는 니콜라우스 레나우의 서사시 〈파우스트〉를 읽고 영감을 얻어 쓴 곡. 악마 메피스토펠레스가 바이올린을 빼앗아 광기 어리고 관능적인 왈츠를 연주하여 마을 사람들과 파우스트를 매혹시키고 유혹에 빠뜨리는 장면을 화려한 피아노 기교로 표현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괄호를 채워 기래현에 관해 정리해 봅시다.

- **출산:** ()에서 전학 옴.
- **부모:** 운동권 출신이자 현재 () 약국의 최민애 약사의 딸.
- **외모적 특징:** 금마고에서는 흔하지 않은 ()이/가 있음.
- **성격:**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함.
- **우수와의 인연:** 5년 전 무대에서 오줌을 싸고 얼어붙어 있는 우수에게 ()을/를 덮어 주고 대신 관객들에게 어린이가 이런 곡 치는 게 쉬운 줄 아느냐며 화를 내주었던 아이.

1-2. (감상적 읽기) 조준구에 말에 대한 래현의 대처를 살펴보고 타인의 시선이나 편견에 휘둘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대추 축제는 경산, 영산은 사과야. 우리 아빠도 사과 농사 지었고.”

아이들은 의미심장한 눈짓을 주고받았다. 눈짓은 다시 투명한 포스트잇이 되어 전학생의 이마팍에 가 붙었다.

‘탈락. 우리랑 다른 애.’

아니나 다를까. 조준구가 피치를 올렸다.

“근데 여긴 왜 왔어? 사과 농사 안 짓고.”

“왜냐니?”

“거기서 농어촌 전형이나 노릴 것이지. 설마 사과 팔러 온 거야?”

고등학생씩이나 되어도 전학생에게 기싸움을 거는 애는 있기 마련이다. 어지간한 전학생이라면 이쯤에서 기가 죽을 테지.

“하하, 맞아. 나 물건 팔러 서울 왔어. 근데 사과가 아니라 약.”

“약?”

“응. 내 꿈이 너 같은 애들 싸가지 키우는 약 파는 거거든.”

“……뭐라고?”

“왜 얼굴이 빨개지니? 약학자가 꿈이라고 한 거뿐인데. 안면홍조 치료하는 약도 개발해 줄까? 사과, 사과, 하는 거 보니 사과 좋아하나 본데 사과 맛 시럽으로 만들어 줄게. 유치한 거 보니 어른스럽게 알약은 못 먹겠고 물약이 딱이겠어.”

2.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희극보다 비극 취향이냐? 그날 표우수 되게 비극적이었잖아.”

갑자기 아랫배가 찌늘하게 아파 왔다. 래현이 수현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미스 터치 낸 게 어때서? 잘 쳐 보려다 건반에서 길 좀 잃은 건데.”

“뭐?”

“건반에서 길 좀 잃어도 된다고. 아니, 잃어야 한다고. 길은 찾으면서 만드는 거니까. 내비게이션 따라가는 게 음악은 아니잖아.”

2-1. (추론적 읽기) 길은 찾으면서 만드는 거라는 기래현의 말을 들은 우수의 마음이 어땠을지 추측해 봅시다.

2-2. (감상적 읽기) 지금껏 살면서 길을 잃었던 경험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 봅시다.

[지도 tip] 각자의 삶 속에서 겪었던 실수와 그것을 극복한 경험을 나눔으로써 자신을 성찰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주세요.

3. (추론적 읽기) 〈보기〉를 읽고 밑줄 친 부분이 답을 추측해 봅시다.

〈보기〉

“내일부터 약발이 세질 거야. 알약 재료가 넉넉해졌거든.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런 시기가 있어. 대신 부작용이 있지.”

“뭔데?”

“잠들기 힘들 거야. 상대의 에너지가 급하게 흘러 들어와서 일종의 과각성 상태가 되거든. 링거액이 너무 빨리 혈관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중략〉

주머니 속 알약 하나를 꺼냈다. 한 번쯤 당겨먹는다고 큰일 나진 않을 거다. 내일부터 약효가 강해질 거라고 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넉넉해진다는 이 알약 재료는 뭘까.’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 내용을 읽고 맞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해 봅시다.

- 우수는 엄마의 권유로 〈월광 소나타〉를 연주하게 되었다. (O / X)
- 우수는 〈월광 소나타〉를 연주한 뒤 엄마에게 연주 실력을 인정받았다. (O / X)
- 베토벤은 줄리에타라는 여인을 위해 〈월광 소나타〉를 작곡했다. (O / X)
- 친구들이 모두 까만 옷을 입고 있다는 걸 안 우수는 급히 옷을 갈아입었다. (O / X)
- 수현은 자신과 같이 교정을 하지 않은 래현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 (O / X)

2. (추론적 읽기) 다음 음악을 듣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 참고 영상: 한국 최고 연주자의 베토벤 〈월광 소나타〉 3악장 레전드 뮤직비디오MV moonlight sonata 3rd mov
https://www.youtube.com/watch?v=CtjzTYnNDGM&list=RDCtjzTYnNDGM&start_radio=1

〈보기〉

“이건 그냥 G 샹프가 아니야. 그 여인을 부르는 베토벤의 목소리지. 줄리에타, 줄리에타, 하고.”

“줄리에타…….”

“줄리에타 귀차르디. 베토벤이 사랑했던, 하지만 정혼자가 있었던 여인이지. 아니 거꾸로 정혼자가 있기 때문에 사랑한 걸지도. 경쟁이 생기는 순간 질투심이 달아오르고, 금기가 생기는 순간 욕망이 자라나니까.”

〈중략〉

호수 위에서 심란하게 일렁이는 달빛, 먼 숲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 형클어진 머리를 쥐어뜯으며 누군가 갈망하는 남자. 알 수 없는 힘이 내 손가락을 이끌어 주고, 굴러주어 주고, 달리게 해 주었다. 무아지경으로 베토벤의 걱정을 받아들였다.

2-1. 〈보기〉를 참고하여 베토벤과 우수의 공통점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2-2. 줄리에타 귀차르디와 기래현의 공통점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2-3. 베토벤과 우수, 줄리에타와 기래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우수가 〈월광 소나타〉 연주를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3.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추론적 읽기) 이 작품에서 드러나는 ‘말’의 상징성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아빠도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야. 에르메스 말, 경마장 말, 치과 로고 말. 말들이 건치잖아.”

“맞다. 나 어제 학생 신문고에 금망아지 관련해서 투서 넣었는데.”

래현이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투서?”

“전학 절차 밟을 때부터 켜하다 싶었는데 이 학교 좀 이상해. 모의고사 석차를 떡하니 붙여 놓질 않나. 전교 10등까지 말 인형을 주질 않나.”

3-2. (비판적 읽기) 밑줄 친 수현의 말에 관한 두 입장 중 하나를 선정하여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적당한 경쟁은 집단에 좋은 거야. 애들한테 동기 부여 되니까 좋고, 선생님들도 한울고나 바다고 이기고 싶어 하시니까 좋고.”

“아니, 탁수현. 그런 건 우리를 위한 경쟁이 아니고, 어른들을 위한 게임이야. 오징어 게임 비슷한, 망아지 게임. 그래서 학교 잠바도 말 로고로 범벅한 건지. 유치해.”

리라가 분위기를 녹이려 나섰다.

“나도 엄마 아빠 공부 타령 싫지만 다 우리 걱정돼서 그러시는 거지. 부모한테 자식은 꺼내 놓은 심장이라잖아.”

래현은 멈추지 않았다.

“그렇다기엔 애들 심장 터지도록 달리게 하는 경마장 같은데. 이 동네.”

수현의 말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수현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도 tip] '경쟁'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나누며 토론하는 것도 좋지만 소설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더 풍성한 토론이 될 수 있습니다.

3-3. (추론적 읽기) 백설희의 말에서 드러난 그녀의 심리를 '경쟁'이라는 키워드와 관련지어 생각해 봅시다.

“내 손이, 내 손이 훨씬 빨랐어. 갠 진짜 별거 아니었어. 나보다 한참 아래였다고.”

“네?”

“그랬던 게 교수 자리까지 꿰차다니……. 더러워. 선배들 패거리에 빌붙어 알랑거린 거겠지.”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 질문에 알맞은 답을 써봅시다.

우수가 영어 시험의 마지막 서술형 문제에서 떠올린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무엇인가요?

래현이가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는 우수에게 가르쳐준 호흡법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수는 자신의 질투를 참지 못하고 래현에게 어떤 말을 했나요?

우수는 통합과학 시험에서 무슨 실수를 했나요?

2. 다음 물음에 답해봅시다.

“이건 아주 클래식한 처방이야. 당나라 사람들도 손톱과 머리카락 태운 재를 젖에 섞어 먹었다고. 그러니 이제 그만 투덜거리고 조용히 해. 음악을 켜고 주문을 외울 차례란 말이야.”

“음악, 주문?”

어병한 내 질문에 답하는 대신 메피스토는 백팩 속 핸드폰을 꺼내 음악을 재생했다. 새카만 폰의 뒷면에 한 입 베어 문 사과 로고가 선명했다. 무슨 개, 아니 악마가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다닌단.

거기서 흘러나오는 선율은 익숙한 것이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파우스트 교향곡〉 3악장 메피스토펠레스. 악마가 인간을 마구 농락하고 조롱하는, 하지만 아찔하게 화려하고 요염한 곡. 흑조가 날갯짓하는 듯한 선율에 맞춰 메피스토가 기도문을 외기 시작했다.

“오, 위대한 자여, 밤의 귀족이시여. 가장 검은 어둠 속에서 제 곁에 계시기를. 제가 빚어낸 마법의 힘으로 이 어린양을 구원하기를 비읍니다.”

뒤통수 머리칼이 삐죽 서게 하는, 음산하고 불길한 목소리였다.

‘밤의 귀족은 누구고, 어린양은 누구지? 수현? 아니면 나?’

2-1. (감상적 읽기) 〈파우스트 교향곡〉을 감상하면서 메피스토폴로 주문을 외우는 장면을 상상해 봅시다.

▶ 참고 영상: Liszt, Franz A Faust Symphony Mov3

https://www.youtube.com/watch?v=vObg1VFO0os&list=RDvObg1VFO0os&start_radio=1&t=38s

2-2. (추론적 읽기) 밑줄 친 ‘밤의 귀족’과 ‘어린양’이 누구지 추측해 봅시다.

3. (추론적 읽기) 작품을 읽고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3-1. 우수가 알약을 통해 얻은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3-2. 우수가 알약을 통해 잃은 것은 무엇인지 정리해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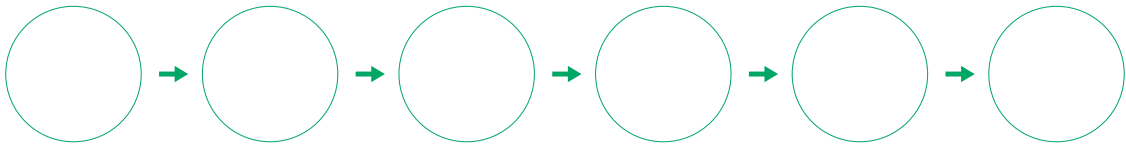
[지도 tip] 3-1문항과 3-2문항의 답안을 한눈에 대조하도록 이끌어 주세요. 우수가 알약을 통해 얻은 것은 ‘눈앞의 일시적 성과’인 반면, 잃은 것은 ‘건강, 우정, 주체성이라는 삶의 본질’임을 학생들이 명확히 깨닫고 성찰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사실적 읽기) 다음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배열해 봅시다.

- ㉠ 우수는 수현의 피아노 뚜껑 속에 수현의 반지를 끼워 넣는다.
- ㉡ 래현은 수현이 먹고 있는 약의 정체를 알게 된다.
- ㉢ 수현은 래현에게 자신의 누나와 약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는다.
- ㉣ 우수는 수현의 콩쿠르 연주를 들으러 간다.
- ㉤ 수현은 약을 끊겠다고 하며 래현에게 약통을 보관해달라 한다.
- ㉥ 수현은 약과 반지 없이 자신의 실력으로 연주해 보겠다고 결심한다.



2. (추론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우리 둘은 나란히 서서 타일 벽을 바라보았다. 그곳엔 생뿔뿔한 명언이 궁서체로 써어 있었다.

사랑은 눈이 머는 것이고, 우정은 눈을 감는 것이다.

평소 같으면 저 유치한 문구 좀 보라며 킁킁거릴 녀석이 오늘따라 잠잠했다. 두 개의 오줌 줄기가 소변기에 부딪히는 소리 사이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2-1. 명언의 의미를 자신의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2-2. 이 명언의 의미를 고려하여 우수와 수현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지도 tip] 명언 속에 등장하는 ‘눈을 감는다’는 표현이 ‘외면’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과 상처를 모른 척 품어주는 용서와 수용’을 뜻함을 짚어주세요. 학생들이 수현이의 비극적 서사와 연계하여 두 사람의 관계가 화해와 성장으로 이어질 것임을 스스로 유추해 보도록 지도하시면 좋습니다.

3. (비판적 읽기)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밑줄 친, 그랑하이 아파트 주민들의 행위를 비판해 봅시다.

재건축 문제를 놓고 갈등이 생기면서 악감정은 노골적이 됐다. 이 동네 상가들이 그렇듯 에덴 빌딩도 노후 건물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준후 엄마가 내민 조건에 금세 합의했는데 최민애 약사만 애를 먹었다. 문구 하나하나에 토를 달았고, 걸핏하면 토론과 공청회를 요구했다. 사태는 점점 그랑하이와 숲빛아파트 주민들의 기싸움으로 번져 갔다. 1970년대에 지어진 금마아파트와 숲빛아파트 중 금마만 재건축되면서 그랑하이란 이름을 얻었다. 근방에서 평당 최고가 아파트로 거듭났고, 조합원들도 꽤 많은 ‘프리미엄’을 얻었다. 반면 숲빛아파트는 재건축 직전에 계획이 번번이 었어졌다. 성당 교인들끼리도, 어린아이들끼리도 사는 곳에 따라 꽤가 갈리기 시작했다. 최민애 약사는 이 문제에도 개입했다. 그랑하이 어린이집이 숲빛 아이들의 입학 금지하고, 공용 놀이터에서도 쫓아 버린 사건을 진보 언론사(편집국장이 약사님의 ‘동지’라고 했다)에 제보해 버린 것이다.

▶ 참고 자료: 아파트에 물린 놀이터... “우리 단지 아이만” 동심 할퀴는 ‘차별의 율타리’《한국일보》 2022년 5월 5일 자.
https://www.hankookilbo.com/news/article/A2022050315240002485?utm_source=chatgpt.com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1.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1-1. (사실적 읽기) 작품 속에 드러난 네 명의 결점에 관해 정리해 봅시다.

너희 중 질투해 본 적 없는 자만 표우수를 돌로 치라고. 하리라 넌 언니들을 질투하다 유튜브를 시작했잖아. 갓은 악플에 시달리면서도 남들의 관심을 포기하지 못하지. 가게 홍보까지 해 주는 널 부모님이 예뻐하시니까. 이젠 스테디윌미 찍을 때 공부하려고 보여 주는지, 보여 주려고 공부하는지 헷갈리지?”

큐빅으로 장식한 리라의 손톱이 가늘게 떨리는 게 보였다. 신이 난 메피스토가 폭주하는 증기 기관차처럼 속력을 올렸다.

표우수	
탁수현	
기래현	
서준후	

1-2. (추론적 읽기) 1-1과 다음 부분을 참고하여 이 작품을 통해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관해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봅시다.

“애들아, 하늘 좀 봐!”

바람막이 재킷을 벗어 내 몸을 덮어 주던 래현이 위를 가리켰다. 청보랏빛 하늘에 은색 별들이 오각형을 그리고 있었다. 어디 한 군데 이지러짐 없이 완전한 오각형을. 그제야 알았다. 혼자서 도달하는 완벽함은 불가능하지만, 여럿이 만들어 가는 완전함은 가능하다는 것을. 가끔 서로를 질투하기도 하지만 우리에게겐 함께 바라볼 창공의 별이 있다는 것을. 음악이라는 별, 우정이라는 별, 사랑이라는 별. 악마처럼 검은 밤에도 빛나는 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친구일 것이다.

2. (감상적 읽기) 다음 물음에 답해 봅시다.

2-1. 여러분의 소망을 아래에 써 봅시다.

2-2. 국어사전을 참고하여 소망과 욕망의 차이점에 관해 생각해 봅시다.

“기왕 지상에 다녀올 거면 소망탑의 돌들을 가져다달라는 거야. 약 만들 때 쓸모가 많다면서, 이 돌들엔 인간들의 욕망이 아귀아귀 깃들어 있으니까.”

“소망과 욕망은 달라.”

“뭐가 다른데?”

2-3. 2-2를 고려하여 여러분이 2-1에 작성한 답이 소망인지 욕망인지 생각해 보고 친구들과 이야기 나눠 봅시다.

3. (추론적 읽기) 다음 부분을 참고하여 이번 장의 제목이 “다시, 라 캄파넬라”인 이유를 추측해 봅시다.

그때 저 멀리서 성당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고요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첫 번째 삼종기도의 시간. 오전 6시를 알리는 순결한 종소리. 어둠을 쫓고 도래한 빛이 종소리에 섞여 눈부시게 산란했다. 젖은 잎사귀들이 음표처럼 흔들리며 바람에 나부꼈다. 똑, 똑, 똑, 맑은 물방울이 얼굴 위로 떨어졌다.

눈을 감고 그 물방울의 세례에 나를 맡겼다. 다시 눈을 뜨자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보였다. 이 아름다운 초여름 마의산, 싱그러운 에덴의 아이들. 물과 빛과 음(音)에 행구어진 그 얼굴들은 성스러우리만치 맑고 투명했다.

나는 홀린 듯 중얼거렸다.

“멈추어라, 순간이여. 너는 정말로 아름답구나.”

반갑다, 어휘야!

처음 만난 어휘	어디에서 쓰였나요? (어휘가 사용된 문장을 옮겨 써 보세요.)	그 어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전에서 의미를 찾아 써 보세요.)

[지도 tip] 이 작품은 각 악장마다 클래식 명곡이 인물들의 심리와 사건의 복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수록곡 중 마음을 울린 한 곡을 직접 들어보고, 인물의 상황 및 자신의 경험과 연결하여 완성도 높은 감상문을 쓰도록 지도해 주세요.

1. ‘프로그램 북’에 수록된 곡 목록을 살펴보고, 내가 감상문으로 쓰고 싶은 한 곡을 선택해 봅시다.

- 곡 제목:
- 작곡가:

2. 다음 물음에 답하며 음악을 감상해 봅시다.

음악이 연출하는 장면 시각화하기

: 음악을 듣는 동안 머릿속에 펼쳐진 장면(색감, 계절, 조명, 인물의 행동 등)을 묘사해 봅시다.

음악을 들으며 떠오른 느낌과 이유 떠올리기

: 음악의 빠르기, 강약, 선율, 악기 등의 특징을 근거로 자신의 느낌을 설명합니다.

소설 속 내용과의 연관성 생각해보기

: 소설 속 인물이나 사건, 주제와 음악을 연결하여 생각해 봅니다. 음악의 빠르기, 강약, 선율, 악기 등의 특징과 작품 내용, 등장인물의 심리 등과 연결 지어봅니다.

나의 삶 및 경험과의 연관성 생각해보기

: 이 음악을 들으며 혹은 소설 속 장면을 떠올리며 생각난 여러분의 경험이나 유사한 감정(질투, 상처, 화해 등)이 있다면 자유롭게 적어봅시다.

3. 다음 예시를 참고하여 감상문 개요를 작성해 봅시다.

[개요 예시]

처음	곡 선정과 동기	선택한 곡과 이 곡을 고른 이유
가운데	음악 감상과 분석	곡에서 느껴지는 분위기, 템포, 선율 특징과 느낌
	소설과 나의 연관성	이 곡을 다룬 장면과 연관된 나의 경험
끝	성찰과 다짐	작품을 읽고 난 후의 깨달음과 교훈, 성찰과 다짐 등

[개요 작성]

처음		
가운데		
끝		

4. 개요를 바탕으로 감상문을 작성해 봅시다.

선택한 곡	
감상문 제목	

※ 예시 답안

1차시 – 작품 미리보기

1. (생략)

2.

인물	특징 및 관계
표 <u>우</u> <u>수</u>	▶ 특징: 유명 피아니스트 엄마의 기대를 받았지만 재능이 평범하여 늘 위축되어 있음. 불안할 때 뒤통수 머리카락을 뽑는 습관이 있음. ▶ 핵심 감정: 수현을 향한 강렬한 (질투)와 (열등감)을 가지고 있음.
탁 <u>수</u> <u>현</u>	▶ 특징: 완벽한 외모와 압도적인 피아노 재능을 가진 인물. ▶ 우수와의 관계: 우수가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크게 (질투)하는 절친이자 라이벌.
백 <u>설</u> <u>희</u>	▶ 특징: 완벽을 갈구하는 촉망받던 피아니스트. 인생을 미스 터치를 허용하지 않는 (무대)이라 믿는 예술가. ▶ 우수와 수현을 대하는 태도: 친아들인 우수보다 압도적 재능을 가진 (탁수현)을/를 더 사랑하고 아낀.

3.

3-1. 질투나 열등감을 느꼈던 대상이나 상황: 학원 성적 발표 날 나와 달리 단기간에 시험 1등을 차지한 친구를 보았을 때. 당시 나의 마음과 행동: 내 노력이 부정당한 느낌이 들어 속상했고 친구의 성취를 축하해주기보다 친구의 작은 실수를 찾으려 애썼다.

3-2. 긴장하면 입술 껍질을 뜯거나 다리를 심하게 떠는 습관이 있다.

3-3. 거절할 것이다. 남의 능력을 훔쳐 얻은 성과는 내 것이 아니므로 언제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평생 시달릴 것 같기 때문이다.

2차시 – 1악장. 라 캄파넬라

1.

구분	탁수현	표우수
연주곡	♪ <라 캄파넬라>	♪ <빗방울 전주곡>
콩쿠르 결과	(리스트)이/가 들어 았았다는 평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함.	극심한 긴장감으로 무대에서 (소변)을/를 지리는 참사를 겪음.
이후의 삶	백설희 원장에게 스카우트 되어 아르떼의 희망이 됨.	(짜파게티)이던 별명이 '오줌싸개'로 바뀌고 아르떼에서 추방됨.

2.

층수	입주 업체	운영자
3~4F	(스타)치과	(탁수현)의 아빠
2F	아르떼 피아노학원	백설희
	토토 발레	—
1F	(더블어썬) 약국	—
	(살롱하이) 미용실	(하리라)의 부모님
B1	떡집, 반찬집, 만둣집	—

에덴 빌딩의 미래 건물주: (서준후)

3.

3-1. (생략)

3-2. 백설희 원장에게: 자신의 예술관을 완벽하게 재현할 천재 탄생을 알리는 종소리
표우수에게: 자신의 열등감과 트라우마를 자극하는 소리

3차시 – 2악장. 메피스토 왈츠

1.

1-1. 수현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 여기며 동경하는 한편, 자신보다 늘 한발 앞서 나가는 수현에게 깊은 열등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복잡하고 양가적인 심리를 지니고 있음. 수현을 닮고 싶어 끊임없이 모방하고 쫓아가지만 좁혀지지 않는 격차 때문에 자괴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

1-2. 우수야, 누군가를 질투하고 쫓아가는 삶은 결국 내 삶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겨주는 일이야. 부럽다고 인정하는 순간 질투심은 사라진단다. 부럽다고 인정하고 너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걸 찾아보는 게 어때?.

2.

2-1. 수현에 대해 질투와 열등감을 느꼈을 때, 어머니의 냉담함으로 마음에 상처를 입었을 때 등

2-2. 앞에서는 착한 아이 연기를 하지만 뒤에서는 음침한 질투심을 키워가는 우수의 이면성을 상징한다.

3.

3-1. 질문 1) 파우스트가 원했던 것: 평생 학문을 다스렸으나 해결하지 못한 허무감을 채워줄 세상의 모든 궁극적 지식과 진리, 그리고 삶의 모든 쾌락과 젊음

표우수가 원했던 것: 절친이자 라이벌인 탁수현을 앞지르는 피아노 연주 재능과 어머니의 인정

질문 2) '멈추어라'라고 외치는 순간, 영혼은 악마의 소유로 넘어간다.

3-2. 광기 어리고 관능적인 왈츠로 파우스트를 유혹하듯, 메피스토가 우수의 열등감을 이용해 악마적 계약으로 이끄는 모티프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4차시 – 3악장. 엘리제를 위하여

1.

1-1.

- 출신: (영산)에서 전학 옴.
- 부모: 운동권 출신이자 현재 (더불어숲) 약국의 최민애 약사의 딸.
- 외모적 특징: 금마고에서는 흔하지 않은 (뎃니)이/가 있음.
- 성격: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하고 당당함.
- 우수와의 인연: 5년 전 무대에서 오줌을 싸고 얼어붙어 있는 우수에게 (피아노 덮개)을/를 덮어 주고 대신 관객들에게 어린이가 이런 곡 치는 게 쉬운 줄 아느냐며 화를 내주었던 아이.

1-2. 타인의 편견이나 무례한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당당하게 언어로 표현하는 자기 확신이 필요하다.

2.

2-1. 늘 정해진 악보와 완벽만을 강요받던 삶에서 벗어나, 실수와 방향도 삶의 과정일 수 있다는 새로운 깨달음과 위로를 얻었을 것 같다.

2-2. 시험 성적이 떨어져 방향했을 때,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가 무엇인지 고민하며 새로운 목표를 찾아낸 적이 있다.

3. 수현의 머리카락.

5차시 – 4악장. 월광 소나타

1. O/O/O/X/O

2.

2-1. 다가가기 힘든 대상을 향한 갈망을 품고 있음. 질투의 대상이 존재함.

2-2. 인물의 마음을 흔드는 존재.

2-3. 착한 아이라는 가식 뒤에 숨겨두었던 수현을 향한 강렬한 질투심, 엄마의 인정을 향한 결핍, 그리고 래현을 향해 터져 나오는 욕망을 표현하고자 한 것이다.

3.

3-1. 모든 것을 서열화하는 속물적 욕망과 비인간적인 경쟁 시스템을 상징한다.

3-2. 수현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적당한 경쟁이라는 명목 아래 학생들의 인격과 건강을 망가뜨리고 어른들의 성과를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기 때문이다.

3-3.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을 헐뜯어서라도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불건전한 경쟁의식을 지니고 있음.

6차시 – 5악장. 파우스트 교향곡

1. 오셀로 / 오지호흡법 / 알코올 중독자 딸 주제에 / OMR 카드를 한 칸씩 밀려 마킹함.

2.

2-1. (생략)

2-2. 밤의 귀족: 악의 근원, 악마의 신
어린양: 질투에 눈이 먼 표우수

3.

3-1. 성적 향상, 피아노 연주 능력, 어머니의 인정, 외모 개선 등

3-2. 탈모 및 불면증 등 건강, 친구와의 관계, 삶의 주체성 등

7차시 – 6악장. 장송 행진곡

1. ㉠ → ㉡ → ㉢ → ㉣ → ㉤ → ㉥ → ㉦

2.

2-1. 친구가 실수했을 때 비난하기보다 그 친구의 사정을 생각하며 모른 척 넘어가 준 적이 있다.

2-2. 우수와 수현이 서로의 허물을 감싸안으며 진정한 우정으로 회복될 것임을 암시한다.

3. 그랑하이 아파트 주민들의 행위는 아파트 시세라는 경제적 기준으로 이웃을 차별하고 배척하는 집단 이기주의 및 물질만능주의에 해당한다. 특히 어른들의 재건축 갈등을 이유로 어린이집 입학을 막고 공용 놀이터에서 아이들을 쫓아낸 것은 아이들에게 상처와 열등감을 심어주는 정서적 폭력이자 지역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훼손하는 행동이기
에 비판받아 마땅하다.

8차시 – 7악장. 다시, 라 캄파넬라

1.

1-1.

표우수	끊임없는 질투와 열등감으로 본심을 감춤.
탁수현	세상을 떠난 누나를 향한 질투와 상실감
기래현	화목한 가정에 대한 질투와 타인을 구원하려는 해결사 강박
서준후	신성에 대한 진정한 열망이 아닌 현실 도피적 태도

1-2. 인간은 누구나 결점을 가진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서로의 차이와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연대할 때 진정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

2.

2-1. 친구와의 우정을 소중히 이어 나가고 싶다.

2-2. 소망은 자신과 타인의 성장을 바라는 긍정적 마음이고 욕망은 타인을 누르고 독점하려는 이기적 탐욕이다.

2-3. 타인을 해치지 않고 더불어 행복해지자는 것이므로 '소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1악장에서 열등감과 트라우마의 상징이던 종소리(라 캄파넬라)가 이번 악장에서는 마의산 성당의 구원과 화해를 알리는 종소리로 전환된다. 이것은 등장인물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임을 '다시, 라 캄파넬라'라는 제목을 통해 암시하고 있다.

9차시 – 소설과 연계한 음악감상문 쓰기

1~3. (생략)

4. 선택한 곡: 멘델스존 – 〈장송 행진곡〉

감상문 제목: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법

소설 〈블랙 푸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탁수현이 콩쿠르 무대에서 원래 준비했던 화려한 난곡 〈밤의 가스파르〉 대신, 묵주 반지와 약물을 버리고 멘델스존의 〈장송 행진곡〉을 연주하는 순간이었다. 늘 남들에게 완벽하고 빛나는 모습만 보여주려 했던 수현이가 죽은 누나의 복사품으로 살아온 자신의 고독한 삶과 작별을 고하는 장면이었기에 때문이다.

곡의 처음에는 장례식의 거룩하고 장엄한 북소리처럼 묵직한 화음이 조용히 깔린다. 화려한 기교나 자극적인 선율 대신 무겁고 투명한 음표들이 가슴을 누른다. 장송 행진곡이라는 제목 답게 누군가의 마지막을 배웅하듯 슬프면서도 한없이 맑은 느낌이다. 마지막 음이 사라진 뒤 찾아오는 완전한 정적과 침묵은 그래서 더 깊은 여운을 남긴다.

수현이는 부모의 기대와 죽은 누나라는 완벽한 원본에 갇혀 자신의 삶을 살지 못했다. 수현이 연주한 〈장송 행진곡〉은 완벽해야 한다는 중압감과 이별이자,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나 역시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늘 잘하는 모습, 상처받지 않는 모습만 보여주려고 내 안의 우울이나 힘듦을 숨겨온 적이 많았다. 수현이의 연주를 통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먹먹해졌다.

백설희 원장의 말처럼, 음악과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 있게 멈추어 서서 침묵과 마주하는 순간일지도 모른다. 남들과 비교하며 완벽해지려고 애쓰기보다, 내 안의 상처나 결점을 수용할 때 진짜 성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앞으로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 스물스물 열등감이 밀려올 때마다 이 곡을 떠올릴 것이다. 그러면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지 않을까. 누나를 떠나보내고 당당하게 홀로선 탁수현처럼.